

과제명	소양강댐, 50년만에 지역활력을 주는 ESG 인프라로 재탄생! (CoP 등록과제명 : 인제-서울간 지역상생 및 관계인구 창출사업)		
제출부서	한강유역본부 한강경영처 (협업부서 : 소양강댐지사)	과제 분야	지역상생
팀원	(리더) 조원제 차장 (팀원) 김지웅 차장, 박지현 부장, 정윤경 대리, 김현진 사원, 방재웅 차장, 장정숙 과장		

■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을 낳은 주역이지만 역설적으로 댐주변은 침체를 겪음
 ■ 준공 50주년을 맞아 댐이 지역활력 증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사업 혁신
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현안과 괴리된 댐주변 지원사업 K-water 단독으로 상생·혁신에는 한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의미있는 지원 기관협업으로 지역 혁신의 마중물 역할

1. 추진배경

- ◇ 그간의 댐주변 지원사업은 지역 현안과 괴리된 단순지원 위주로 비용 집행
- ◇ 주민 체감도가 낮고 지역상생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혁신 필요

- (지원사업 정체성) 한강유역 댐지원사업 총예산은 221억원('21년)에 달하나 집행의 체감도가 낮아 지자체는 불만을 토로함
 - K-water · 지자체가 예산을 각자 집행하여 주민 만족도가 낮은 단순지원*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임('21년 총예산의 80%, 177억원)
 - * 농기구, 마을회관 비품개선 등 / '21년 한강유역 댐 지원사업 평균 만족도 72.9점
 - 적합한 용처를 못찾은 이월액도 총예산의 31.2%(69억원, '21년)에 달함
- (지자체의 고민) 댐주변 지자체 대부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 존립을 지자체 핵심현안으로 고민함
 - 이에, 지자체마다 농촌체험 등 귀농 및 인구 유입을 유인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나 담보상태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임
 - * '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(1조원/年, '22.8.16. 행안부), 인구감소지역 전국 107개

2. 추진내용

- ◇ 이해관계기관별 **현안의 교집합**을 찾아 상호 협력하여 혁신의 **시너지 창출**
 ① K-water(지원사업), ② 산촌(지방소멸), ③ 도시(퇴직인구), ④ 행안부(지역 자생모델)

1] 타성에 젖은 댐지원사업을 지역 속원을 해결하는 재원으로!

- (매칭그랜트) K-water · 인제군이 각각 보유한 댐지원 이월예산을 1:1 편당, 지방혁신에 활용하기로 합의(3년간 6억원, '22.4월)
 - 양 기관이 뜻을 모아 혁신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확대
- (혁신 테마) 인제군의 현안 경청 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주제인 “지방활력 증진”을 핵심 주제로 선정('22.4월)
 - 인구 3만명(인구밀도 전국 최저) 기초자치단체로서 ‘軍 기지’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광지로 활력 증진 및 지방소멸 특화과제 발굴에 역점
 - 특히, 50년간 지리적으로 고립되었던 소양강댐 수몰지에 터널이 개통('22.1월)되며 군은 DMZ 관광주축으로 지역 재조명을 희망

2] K-water가 도시-산촌 지자체가 상호연대하는 혁신의 가교 역할

- (혁신 연대) ‘단비 특특’을 활용한 대국민 공모로 지역 활성화에 혁신 경험과 관심을 가진 파트너 선정('22.6월)
 - 인제군은 침체된 지역활력 증진에 관심
 - 서울시는 신중년층의 커리어 재설계 복지사업*으로 도시민 평생교육 지원
 - * 전문성있고 트렌드에 민감한 신중년층이 퇴직 후 사회 잉여로 취급되지 않고 제2의 경력을 쌓도록 지원



- (경험 전수) 도시의 참여기관이 지역에 지식을 전수하여 커뮤니티 역량을 키우고 자생형 혁신을 이어가도록 파트너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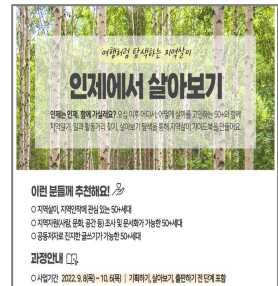
3 지역 활성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제군 리브랜딩

□ (관점전환) 전입 인구증대라는 거시과제보다 인제군에 애정을 갖고 지속교류할 수 있는 **관계인구*** 형성으로 관점 전환

* 지방소멸대응 전략[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행정 브리프('21.5월, 지방행정연구원)]

□ (차 별 성) 흔한 살아보기 체험과 달리 **도시민의 시각으로 지역을 재발견**하고 경험을 **전파**하는데 초점

- 지역주민이 프로젝트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**스토리텔링 리빙랩** 형식의 “지역탐색” 운영('22.9~11월)
- 참여자의 경험을 도서 출판, 디지털 미디어 등의 기록물로 제작하여 마케팅, 성과공유('22.10~11월)



* 원주민 · 지역 정착민과의 토크 콘서트/인터뷰, 도시민의 지역탐색 체험 에세이 출판, 주민의 진솔한 이야기와 지역 자원을 스케치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

구분	[기존] 他지자체 농촌 살아보기	[개선] 인제군 스토리텔링 리빙랩
관점	▪ 지역주민 생활 체험	▪ 도시인을 사로잡은 지역의 재발견
활동	▪ 귀농교육, 빈집 스테이 위주	▪ 교류 · 체험기록 · 전파가 핵심

- 또한, 지역문제 해결 **플랫폼(행안부)**과 협력하여 청년세대와 함께 인제군을 매력있는 지방도시로 **리브랜딩**하는 프로젝트 병행

3. 실무상 어려움과 해결 노력

- ◇ **혁신 파트너**로서 인제군을 지속 설득, 군수 · 핵심조직 참여로 **동력 확보**
- ◇ **유관기관 협업**으로 지방소멸 난제해소에 역량 결집, 지속가능 과제로 설계

□ (어찌다 인제) 댐 주변 지자체 대부분 지원사업 혁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혁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상황

- 50주년을 맞아 ESG형 댐역할 정립을 꾀하는 **소양강댐** 주변을 **공략**하고 설득(인제군), 군정 핵심조직(기획국 등) 참여로 **동력 확보**

* 업무협약 체결(인제군수↔한강유역본부장, 9.20), 민관합동 TF 구성

- (낙숫물로 바위뚫기) K-water 단독으로 '지방소멸 난제' 해소에 한계
 - 유관기관 협업으로 3년 지속과제로 설계하고 시너지 창출

구분	K-water 단독	유관기관 협업의 시너지
총예산	▪ 총 3억원	▪ 6.6억원(인제군, 행안부 지역문제 플랫폼)
내용	▪ 영농지원, 평생교육 등 기존 주민지원사업 답습	▪ 지역 활력증진 프로젝트 (서울시, 사회적기업 등 전문기관 동참)



4. 주요 성과

◇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단계적 지역활력 증진모델을 최초로 도입하여 '지방소멸 위기'라는 지역현안 해소에 기여,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체감도 제고

- (계량성과) 짧은 기간(4개월)에도 불구하고, 관계인구 Pool(58명) 확보, 주민역량 강화(자격증 17명) 및 소득증대(3천만원), 일자리 창출(2인)
- (성과확산) 언론보도(경향신문, JTBC 다큐), 도서(인제하루) 등을 통해 지역소멸 극복 견인 우수사례로서 성과 홍보



* “서울에 있지만 저의 사랑과 애정은 이렇게 통한다” (참여자, JTBC)

5. 향후 계획

- (활동심화) 지역탐색('22)에 이어 일·활동하며 살아보기('23~'24)까지 도시민이 인제군과 깊은 관계를 맺는 단계적 활동 전개



* 관계인구 지원 앱·포털 운영, 특산품 묘목 투자 등 팬슈머 사업 시행

- (혁신확대) '23년부터는 연천군 등 혁신 프로젝트의 유치를 희망하는 한강유역 他 댐 주변지역으로도 프로젝트 확산 예정

□ 소양강댐 지원사업 혁신 업무협약(‘22.9.20, 한강유역본부장↔인제군수)

아시아투데이 | <https://me2.do/GA6Pc0H9> 

인제군, K-water 한강유역본부와 소양강댐 지원사업 업무협약

기사승인 [2022-09-21 12:08]



□ 경향신문(‘22.9.6) <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209061426001>

경향신문

인제에는 지방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

주영재 기자 kyung@khan.com
2022-09-06 14:25 일렉 | 2022-09-06 14:25 수정

「신월리」달 뜨는 마을과 통울권 단계-통울예방울길, 마을 살리기 협력패스파인더, 인제 환담살기 프로그램으로 연구 유일 유도.



경향신문

강원도 인제군 남면 현명대에서 바라본 신월리가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. / 주영재 기자

강원도 홍천군을 지나 인제군 설악로로 들어섰다. 반대편 차로에 자주포를 실은 대형 트럭 예닐곱대가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줄지어 달렸다. 왼편에 소양강을 끼고 하수내리에 다 다르자 38선을 지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나온다.

(중략)



경향신문

손영덕 신월리 이장이 지난 8월 29일 최고령 부영초등학교 신월분교 앞에서 도록 뛰기 소풍의 안전사고 변하게 돌이키는 미래를 실현하고 있다. / 주영재 기자

■ 지역에 애정있는 ‘관계인구’ 확보해야

농산어촌에서 사는 ‘귀촌’과 귀촌 후 농업에 종사하는 ‘귀농’을 구분해보면, 귀촌 인구 중 귀농을 택한 이는 채 10%가 되지 않는다. 귀촌도 부담스러운데 귀농을 권하는 건 지자체로서도 들인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귀촌귀농보다는 지역을 자주 찾고, 애정을 갖고 그 지역의 상품을 소비하는 ‘관계인구’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. 지역에 애정을 갖는 이들이 장차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도 높다.

(중략)

패스파인더는 한국수자원공사, 인제군과 협업해 ‘지역 살기 프로그램’을 준비하고 있다. 수자원 공사는 십수년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벌여왔는데 그간의 답습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지원사업으로 지역살기를 택했다. (이하 생략)

□ JTBC 특집다큐 「상생으로 행복을 수(水)놓다」 (22.11.19 방영)



□ 프롤로그북 「인제하루」

